

연구논문

손우 홍석 예학의 성격과 의의

한재훈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철학 전공

kjydist@hanmail.net

- I. 들어가는 말
 - II. 손우 홍석의 생애와 학문
 - III. 손우 홍석의 예서와 예설
 - IV. 손우 홍석 예학의 특징과 의의
 - 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예학은 영남 지역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16세기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조선시대 예학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개되는 예학의 성질과 방향 또한 그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거나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정립되었다. 실제로 『퇴계전서』에는 수많은 예 관련 답문과 논변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후학들에 의해 『퇴계선생상제례답문(退溪先生喪祭禮答問)』 등과 같은 별본으로 편찬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퇴계와 그 제자들을 계승한 이른바 영남학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예서(禮書)들을 편찬했다.

물론 『퇴계선생상제례답문』은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황의 예학적 권위가 자료집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였다. 이에 비해 기호 지역에는 아직 영남학파에 견줄 만한 예학의 논리적 토대와 주장의 연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학파적 의식이 강했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누구보다도 『퇴계선생상제례답문』의 문제점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고, 그것보다 더 훌륭한 토대와 연원을 자신의 진영에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왕성한 작업과 풍부한 결과물은 그의 후학들에게 훌륭한 토대와 연원이 되어 주었다. 이제 김장생의 후학들은 자신들의 진영 안에 구축된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논리와 주장을 생산해 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 진영과 치열한 논쟁을 거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영남 지역의 예학과 기호 지역의 예학은 상호 긴장 관계를 동반한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조선시대 예학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갔다.

손우(遜愚) 홍석(洪錫, 1604~1680)의 예학은 영남학파의 예학과 기호학파의 예학 그 경계선 위에 있다. 대대로 한양에 거주하던 가문에서 태어난 홍석

은 당시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문인이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했던 기호학파의 인물이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영남의 봉화(奉化) 지역으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 예학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그의 예학에는 한강(寒岡) 정구(鄭逋, 1543~1620)의 예학적 유산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홍석의 예학적 좌표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홍석의 예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손우선생문집(遜愚先生文集)』¹에 수록된 다양한 주제의 글 중에서 예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석 예학의 특징과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초석을 놓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학계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손우 홍석의 예학에 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손우 홍석의 생애와 학문

손우 홍석은 1604년(선조 37) 2월 13일 삭녕군(朔寧郡)² 관아의 관사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묵재(默齋) 홍언필(洪彦弼, 1476~1549)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내외종간이다. 그의 증조부는 역시 영의정을 역임한 인재(忍齋) 홍섬(洪暹, 1504~1585)이고, 조부는 철원 도호부사(鐵原都護府使)를 지낸 홍기영(洪耆英, 1549~1612)이다. 이

1 홍석(저), 김용주(역), 『손우선생문집』(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0).

2 삭녕군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중면 일대에 1914년까지 있었던 옛 고을의 이름이다.

렇게 홍석의 집안은 대대로 고관대작을 역임한 명문가로 한양에 본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홍석이 삭녕군에서 태어난 것은 그의 아버지 홍경소(洪敬昭, 1577~1637)가 당시 삭녕 군수로 부임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외가 역시 명문가였다. 어머니 청주한씨는 중종(中宗)의 둘째 딸 의혜공주(懿惠公主)의 남편인 청원부원군(淸原府院君) 한경록(韓景祿, 1521~1593)의 손녀이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 1515~1588)의 외손녀이다.

홍석의 자는 공서(公敍) 또는 군서(君敍)이고, 호는 손우(遜愚)이며,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시호는 정민(貞敏)이다. 관직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사어(司禦)를 지냈으며, 사후에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특히 그는 병자호란 이후 태백산 아래 춘양(春陽)에 은거하며 대명절의(大明節義)를 지켰는데, 이 당시 이 지역에 각금당(覺今堂) 심장세(沈長世, 1594~1660)·두곡(杜谷) 홍우정(洪宇定, 1595~1654)·포옹(抱翁) 정양(鄭灋, 1600~1668)·잠은(潛隱) 강흠(姜愼, 1602~1671) 등이 같은 뜻을 품고 모여 절의를 지키는 은자적 삶을 살았다. 이들을 세칭 ‘태백오현(太白五賢)’이라고 한다.

홍석은 1625년(22세)에 김상헌을 찾아가 제자가 되었다.³ 다른 기록에는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문인이라는 기록도 있으나 「연보」에는 실려 있지 않다.⁴ 그가 1632년(29세)에 회덕으로 송시열을 찾아간⁵ 데 이어 49세에는 화양동으로 또 한 번 찾아갔다.⁶ 그는 송시열과 학술적으로 깊이 교류하면서 자신의 저작에 서문을 써 달라고 하거나 조상의 비문도 부탁했다. 그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주선으로 관직에 추천되기도 했다. 홍석의 손

3 洪錫, 『遜愚先生文集』「附錄·年譜」, “乙丑 先生二十二歲 受業于淸陰先生之門”.

4 洪錫, 『遜愚先生文集』「附錄·年譜」, “【按『東國文獻』, 錄先生又爲愼獨齋金先生門人 而『年譜』中不載受業年月 則豈或有闕耶 無有可考 惜哉】”.

5 洪錫, 『遜愚先生文集』「附錄·年譜」, “壬申 先生二十九歲 訪尤菴宋先生於懷德”.

6 洪錫, 『遜愚先生文集』「附錄·年譜」, “壬辰 先生四十九歲 … 訪尤菴先生於華陽洞”.

자 홍가상(洪可相, 1649~1740)이 송시열의 제자가 된 것도 이런 인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홍석은 송준길과도 교류했다. 1646년(43세)에 문희(聞喜, 지금의 聞慶)의 오정사(烏井寺)에서 함께 강학을 한 뒤에는 주변 유람했으며,⁷ 화양동으로 송시열을 방문했을 때에도 송준길이 자리를 함께했다.⁸ 또한 홍석이 1662년(59세)에 지은 「절기도(節氣圖)」⁹를 송준길은 1671년에 현종에게 바치기도 했다.¹⁰

이러한 그의 사우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홍석은 한양에 본거지를 둔 기호학과 서인 계열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가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영남 지역의 봉화로 내려온 까닭은 무엇일까? 1636년 12월 발발한 병자호란의 충격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자호란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국토가 오랑캐에 의해 유린되어 국왕은 삼전도의 치욕을 당했고 백성들은 감내하기 힘든 핍박을 받았다. 특히 야만(오랑캐)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문명(중화)의 참상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했던 지식인들의 충격은 실로 컸을 것이다. 홍석 역시 그러한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과 세상에 환멸을 느낀 그가 태백산 아래 춘양동까지 찾아와 은둔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보」에는 이 내용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7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丙戌 先生四十三歲 十月 與同春宋先生 講學于聞喜之烏井寺 因遊覽而歸”.
 - 8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壬辰 先生四十九歲 … 訪尤菴先生於華陽洞 同春先生亦來會”.
 - 9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壬寅 先生五十九歲 太極節氣圖成【窮天地造化之理 明陰陽進退之幾】”.
 - 10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辛亥 先生六十八歲 … ○十一月 同春先生獻先生所畫節氣圖於朝【同春先生筭子略曰 此圖出於洪錫 而宋時烈就加校正 臣亦與聞一二 非出臆說 皆本先儒舊論 願殿下於天地造化之理 陰陽進退之幾 默究精察 心會神融焉 批曰 省筭觀圖 戒誨切至 可不置諸左右而觀覽焉】”.

경진년(1640) 선생 37세. 태백산의 춘양동(春陽洞)에 은거하였다.【이해 봄에 오랑캐 장군이 의주에 와 있으면서 시끄럽게 떠들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생은 분개하며 도해(蹈海)¹¹의 뜻을 품고, 마침내 태백산 춘양동에 우거하였다. 깊숙한 곳을 두루 찾다가 손우평(遜愚坪)에 거처를 정하고 세상을 피해 몸을 숨길 곳으로 삼았다.】¹²

이 기록을 보면, 홍석이 태백산 자락에 와서 은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병자호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를 살았던 모든 지식인이 다 홍석과 같은 은둔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병자호란이 지식인들에게 준 충격과 울분이 엄청났을 것임은 틀림없지만, 반드시 지식인이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지는 절대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석의 동천 원인을 병자호란이라는 외재적 요인에서만 찾기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홍석의 근본적 진단과 내재적 성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세도(世道)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개연히 마음 아파했다. 얼마 뒤에 군수공(郡守公)이 세상을 떠나자 선생은 삼 년 동안 여묘(廬墓)를 했다. 그 뒤로

-
- 11 도해는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바다로 들어가 죽음'을 뜻하는 말로, 춘추시대에 진나라 군사가 조나라의 한단을 에워쌌는데, 위왕이 객장군 신원연을 시켜 평원군을 통하여 진소왕을 황제로 삼자고 청하게 했더니, 제나라의 노증련이 마침 조나라에 왔다가 이 말을 듣고 평원군을 통하여 신원연을 만나 "그가 방자하게 황제가 된다면 나는 東海로 들어가 죽을 따름이다."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 12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庚辰 先生三十七歲 遜世于太白之春陽洞【是年春 胡將來在龍灣 噴然不已 先生憤然有蹈海之志 遂寄寓於太白山春陽洞 遍探奧區 乃定居于遜愚坪 爲遜世藏身之所】".

는 과장(科場)은 단념하고 과거 공부와 관련된 서적들을 모두 없애 버렸다. 사람들이 “어찌 후세의 자료가 되도록 남겨 놓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선생은 “이것들을 후세에 남겨 주는 것은 명리(名利)의 장에서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성리학에만 전념하고 이단잡서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방향이 이미 정해지자 장왕(長往)¹³의 뜻을 갖게 되었다. 청음 선생이 이를 몹시 훌륭하게 여기며 훌륭한 선비(奇士)라고 하였다.¹⁴

이 기록에 따르면, 홍석은 부친이 세상을 떠난 정축년(1637) 무렵 세상을 피해 장왕할 뜻을 품었고, 그런 뜻을 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세도가 크게 변한 것’을 보고서였다. 그렇다면 홍석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세도가 크게 변했다고 느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바로 직전에 발발했던 병자년(1636)의 호란이었을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홍석이 문제시했던 ‘세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이 단순히 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는 국제정세의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홍석에게 병자호란은 그 자체의 충격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반에 경장(更張) 또는 변통(變通)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석이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성리학에 전념하게 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자각한 지식인의 근본적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며, 장왕의 뜻을 품고 태백산으로 숨어 들어간 것 역시 이를 실천으로 옮긴 결과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13 장왕은 장왕불반의 준말로, ‘세상을 버리고 아주 은둔함’을 뜻한다.

14 『遜愚先生文集』「附錄·年譜」, “丁丑 先生三十四歲 六月丁郡守公憂【先生觀世道之大變 慨然隱疾 未幾郡守公棄世 先生廬墓三年 自後斷意科場 盡祛學業書籍 人謂何不留爲後世資 先生曰 以此留後 祇是誨盜於名利場耳 遂專意性理之學 異端雜書曾不掛眼 趨向已定 又有長往之意 清陰先生甚器之 以奇士目之】”.

오늘날은 의(義)와 리(利)가 분명하지 않고 기강이 해이해져서 천리(天理)가 사람에게서 없어지고 법령이 세상에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윤리를 무너뜨리는 변고와 강상을 어지럽히는 폐단이 저절로 풍조를 이루어 되돌아보며 꺼리는 이조차 없다. 세도(世道)가 과도처럼 쪼개져 회양(懷襄)¹⁵의 참혹함과 다르지 않으니, 옛 법도만 따르고 바꾸지 않으면서 한 시대를 구원하고 다스리는 계책을 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힘써야 할 것으로 의와 리를 밝히고(明義利) 기강을 엄숙하게(肅紀綱) 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¹⁶

이 글은 홍석이 당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는 「시무설(時務說)」의 일부이다. 「시무설」은 모두 7,600여 자에 달하는 장편의 글로, 수시변통(隨時變通)의 입장에서 당시 17세기 조선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 역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품이다. 여기에서 홍석은 ‘세도가 과도처럼 쪼개졌다.’고 당시를 개탄했는데, 그가 주목한 쪼개진 세도의 증상은 ‘의와 리가 분명하지 않고, 기강이 해이졌다.’로 대표된다. 즉, 성리학자였던 그가 생각하는 ‘세도’는 의리와 기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시무설」은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한참 뒤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¹⁷ 비록

-
- 15 회양은 ‘회산양릉’의 줄임말로, 『서경』 「우서·요전」에 “넘실거리는 홍수가 널리 해를 끼쳐 거세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는다[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에서 인용한 것이며, 나쁜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빗대어 표현할 때 사용한다.
- 16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7 「時務說」, “當今 義利不明 紀綱陵替 天理殄滅於人 法令不行於世 敗倫之變 亂常之弊 自成厥風 曾莫有顧忌者 世道之波析 無異乎懷襄之慘 則其可曰徒循舊章 而不爲變更 以制一代救治之策乎 然則今日之要務 莫急於明義利肅紀綱”.
- 17 「시무설」을 홍석이 언제 지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대략 1660년에서 1668년 사이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 번째는 홍석이 태백산에 은거한 이후 내놓은 저술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 1640년 태백산에 은거한 이후 홍석의 초기 저술은 대체로 예학적 주제에 관한 것들이 주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홍석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을 리는 없다. 은거한 이후 그의 학술적 작업이 초기에는 예학에 집중되고, 후기에는 성리설(性理說)과 경세론(經世論)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1640년 태백산 춘양동으로 동천한 직후인 1641년 『예총요설(禮叢要說)』을 편찬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다양한 예서(禮書)를 편찬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주제에 관한 예설(禮說)을 내놓는다. 이후에는 1659년에 종부시주부에 제수된 이후 송라찰방과 용담현령 그리고 익위사 익찬과 사어 등의 관직을 역임하는 기간에 여러 성리설과 경세론에 관한 저술들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그의 학술적 주제는 시기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 차이는 쪼개진 세도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였을 뿐 문제의식 자체의 변화는 아니다.

젊은 날 홍석은 자발적으로 과거를 포기하고, 장왕의 뜻을 품고 은둔의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만년에는 관직에 나아가 국사에 봉직했다. 그는 자신이 벼슬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세신(世臣)¹⁸의 후예로서 분수와 의리의 절

를 이룬다. 그에 비해 1659년 종부시 주부에 제수된 이후에는 성리학이나 경세론 관련 저술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시무설」은 1660년 이후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홍석의 경세론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작인 「고설」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연보」에 따르면 「고설」은 1676년에 완성되었고, 그 아래에 “포옹 정양이 이 글을 보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큰 사무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중요한 도리이다.’라고 감탄했다 [抱翁鄭公覽之 歎賞不已 曰治世之大務 經國之要道也].”는 기록이 실려 있다. 그러나 정양은 「고설」이 완성되기 12년 전인 1668년 8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다면 포옹이 보고 감탄한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 김용주는 「고설」을 “「시무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용주, 「손우선생문집 해제」, 홍석, 앞의 책(2020), 35쪽]. 그렇다면 정양이 보고 감탄한 글은 「고설」이 아니라 「시무설」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홍석의 「시무설」이 1660년에서 1668년 사이의 작품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18 세신은 여러 대에 걸쳐 중요한 관직을 역임하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를 일컫는 말로, 『맹자』 「양혜왕하」에 나온다.

실함이 초야의 한미한 집안에 견줄 것이 아니”¹⁹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신은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는 신하나 그런 가문을 의미한다. 홍석은 자신이 그러한 세신의 후예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관직에 나올 때만 가졌던 생각이 아니라, 그전에 태백산에서 은거할 때도 가졌던 생각이었을 것이다. 세도가 크게 변한 것을 보고도 과거급제하여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세신의 후예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동천을 단행했을 것이고, 은거 중에도 세신의 후예로서 세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학술연구에 집중했다. 그의 예학과 성리설·경세론은 모두 이와 같은 내재적 문제의식 속에서 연결되고 통합된다.

면우(俛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은 『손우선생문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가 노나라 역사를 『춘추』로 정리하여 오류를 도탐게 하고 예법을 뿔뿔하게 하였다. … 공은 일찍부터 성현의 글에 힘을 쏟아 극기(克己)와 과욕(寡欲)의 공부에 깊이 터득함이 있었다. 예(禮)에 더욱 신중을 다하여 여러 설들을 참고하고 절충하여 논술한 바가 많았다. … 오류를 도탐게 하고 예법을 뿔뿔하게 하는 실질을 체득하고 이해하며 『춘추』의 심법을 잃지 않았다.²⁰

면우의 말처럼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예학의 본질은 단순히 의장도수(儀章度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바로 세우는

19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3, 「世子勸學疏【壬子五月】」, “以世臣後裔 分義之切 非若草莽寒族之比”.

20 洪錫, 『遜愚先生文集』 「遜愚先生文集序[郭鍾錫]」, “孔子修魯史爲春秋 以惇典庸禮 … 公早用力聖賢之書 深有得於克己寡欲之功 尤致謹於禮 參考折衷 多所論述 … 體會於惇典庸禮之實 而不失乎春秋之心法”.

『춘추』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다. 홍석이 예학에 힘을 쏟은 이유 역시 그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의 경제론은 물론이고 예학적 논의에 ‘변통’이라는 말이 무수히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 손우 홍석의 예서와 예설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92)가 증언한 것처럼 홍석의 학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예학을 꼽을 수 있으며,²¹ 그의 예학적 저술은 크게 예서의 편찬과 다양한 예학적 주제에 관한 예설로 나눌 수 있다.

1. 손우 홍석의 예서

홍석이 편찬한 예서는 『예충요설』(1642)·『상제요록』(1651)·『예기유회』(1654) 세 종류이며, 편찬은 아니지만 1669년에 정구의 『오복연혁도』를 중간한 것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예충요설』

1641년에 시작해서 1642년에 상·하 2책으로 완성한 『예충요설(禮叢要說)』은 정구가 편찬한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를 요약·정리한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²² 『오선생예설분류』는 다섯 분의 선생(程顥·程頤·司馬光·

21 洪錫, 『遜愚先生文集』 「遜愚先生文集序[田愚]」, “記曰 人之所以爲人者禮義也 人苟能秉義而明禮 人道之大體斯立矣 若司禦贈吏判諭貞敏遜愚先生洪公 卽其人乎 … 公惟其所尙者禮義也 故其平日所著 不越乎二者之間 而有足以大神名教者”.

22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辛巳 先生三十八歲 編禮叢要說【先生以爲古道之行 要在

張載·朱熹)의 예설을 모아 이를 관·혼·상·제와 잡례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으로, 조선시대 예학사에서 예학 연구의 질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작품이다.²³ 홍석은 『오선생예설분류』를 심도 있게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약·정리함으로써 자신의 예학적 토대를 착실하게 다져 갔다. 현재 이 책은 전하지 않지만, 홍석이 지은 「예충요설기(禮叢要說記)」가 남아 있어서 이 책을 편찬한 취지를 살펴볼 수 있다.²⁴

2) 『상제요록』

『상제요록(喪祭要錄)』²⁵은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상례와 제례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상·하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례와 제례에 관한 내용이 각각 실려 있다. 먼저, 상례를 다룬 상권은 상을 당하기 전인 「구병(救病)」에서부터 장례를 치르기 전까지를 먼저 언급한다. 그런 다음 상례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그림(圖)²⁶들을 제시하고, 다시 장례 절차를 조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삼우제-졸곡-부제-소상-대상-담까지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거상잡의(居喪雜儀)」와 「축식(祝式)」·「조장식(吊狀式)」·「제전식(祭奠式)」·「진설도(陳設圖)」를 차례로 수록

知禮制 而古先禮制 散在諸書 尋求領略 旋得旋失 要爲常目遵行之資 論辨於清陰先生及尤菴同春兩先生 輯爲上下二冊】”.

- 2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재훈, 「寒岡의 退溪 禮學 繼承과 進展: 『五先生禮說分類』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6(2019) 참조.
- 24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6 「禮叢要說記」, “鄭寒岡所哀五先生禮說 上自天子下至庶人 凡諸儀制 無不備載 此足爲古制考據之地 但以諸文全編哀輯 簡帙浩繁 妨於取考 乃敢刪煩抄略 因其條目 膽書于別冊 始役於辛巳冬 卒業於壬午秋”.
- 25 『상제요록』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남선현문집국역총서 57’로 간행한 『손우선생문집』 홍석, 앞의 책(2020)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遜愚先生文集』 拾遺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 26 여기에서 다루는 그림은 〈懸車圖〉·〈襲帽前圖〉·〈襲帽後圖〉·〈夷牀圖〉·〈己爲本宗服圖〉·〈婦人爲夫黨服之圖〉이다.

했다. 다음으로 제례를 다룬 하권은 제사에 올릴 음식의 종류를 제시한 「제찬(祭饌)」을 시작으로, 제찬을 올리는 차례를 제시한 「진찬차례(進饌次例)」 그리고 제사 진행 절차를 제시한 「행제의(行祭儀)」순서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제사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들을 정리한 「제론(祭論)」, 이어서 「기제의(忌祭儀)」, 「묘제(墓祭)」, 「속절차례(俗節茶禮)」 등을 차례로 다루고, 마지막으로 「잡기(雜記)」에서 제사를 둘러싸고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나 논란이 있는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 책은 번잡한 예제를 모아 놓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시의’를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예의 본의에 부합하게 행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편찬되었다.²⁷ 이 책에서 『예기』나 『의례』부터 송대 학자들의 예설과 퇴계와 사계의 예설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예학적 산물을 두루 참고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그 자신이 기호학과에 학문적 연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를 요약·정리한 『예총요설』을 다수 인용했다는 사실이다.

3) 『예기유회』

『예기유회(禮記類會)』는 예를 연구하는 데 『예기』가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로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다.²⁸ 홍석은 1645년 평구산(平丘山, 현재의 남양주시 삼패동)으로 은퇴한 스승 김상헌을 찾아뵙고 자신의 이러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에 김상헌은 자신도 『예기』의 그러한 한계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시

27 洪錫, 『遜愚先生文集』 拾遺 「喪祭要錄下」, “今於此冊 廣哀雜制 則必又厭其煩漫 不啻若古禮文 泛看之爲 故抄錄緊制若干條 附以時宜所可易行及不可不知之事 使之考閱簡略 臨急取效 誠一 置簿之例 不敢自列爲輯禮之意也 有意於禮制者 少此不足 則就考家禮 行之無關可也”.

28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6 「禮記類會序」, “禮記文字汗漫 有雜出之處 余竊病之 欲爲分類彙輯 以便考覽”.

정할 작업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대가 완성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뜻이다.”라며 적극 찬성했고, 이후에도 작업의 방향은 물론 내용의 구성 등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²⁹ 현재 이 책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 전모를 살펴볼 수는 없다. 다만 1645년에 시작한 작업이 1654년에 최종 완성되었다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분량의 역작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석은 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간행된 『예기대전』은 물론 일본에서 간행된 판본까지 구하여 대조하면서 고증했고, 여러 색깔의 종이를 붙여 가면서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16부 53조목에 이르렀으며, 직접 등서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다고 한다.³⁰

4) 『오복연혁도』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³¹는 당초 정구가 1617년에 완성한 것을 1629년에 그의 문인인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1569~1643)가 담양 부사로 있을 때 초간본을 간행했고, 1664년 당시 용담 현령으로 재직 중이던 홍석이 전라

29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乙酉 先生四十二歲 閏六月 先生如平丘山 就省于清陰先生 講學 因稟質類會禮記之意【是歲 清陰先生退居于平丘山 先生就省 講明性理 討論禮制 因以類會禮記之意 稟質于先生 先生欣然曰 禮記門類雜出 條目繁絮且其文義間有牴牾傳會之處余欲刪正 類會以便考閱且以去後人之疑有其意而未就爾能成之即余之意也因與講定其制先生如其制類編”.

30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6 「禮記類會序」, “取唐板大全倭板大全 參互考證 遂爲類會之舉 裁以各色之紙 隨類着標 … 分爲十六部五十三條目 自筆謄書 卒業於八朔之內 時則甲午年也”.

31 이 책은 당초 정구가 상복의 복제와 관련된 제가의 학설을 도식으로 요약한 책이다. 특히 『가례』에 상복 제도와 관련된 4개의 복제도가 실려 있지만 시대에 따라 연혁되어 온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를 다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구는 『의례』와 『예기』 및 역대의 율령과 『주자가례』의 본문 등을 참조하여 35개의 복제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각기 도식으로 작성하여 복제의 연혁 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정경주, 「오복연혁도 해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한국예학총서 2』(부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참조.

감사로 있던 익암(益菴) 정만화(鄭萬和, 1614~1669)와 상의하여 중간본을 간행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홍석이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를 연구하여 이를 『예충요설』로 요약·정리한 데 이어 정구의 『오복연혁도』를 중간했다는 사실이다. 홍석은 『상제요록』에서 『예충요설』의 내용을 다수 인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복연혁도』에 나오는 <기위본종복도(己爲本宗服圖)와 <처위부당복도(妻爲夫黨服圖)><부인위부당복도(婦人爲夫黨服圖)>로 제목 수정을 역시 실행했다. 이는 홍석의 예학 형성에 정구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손우 홍석의 예설

홍석의 예학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사실 다양한 주제에 걸쳐 폭넓게 개진한 논설류들이다. 이들 자료는 『손우선생문집』 권5의 잡저, 권6의 변·의, 권7의 설, 권8의 논·축문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으며, 습유(拾遺)에도 몇 편의 글이 더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상의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국조례(國朝禮)와 사가례(私家禮)로 나눌 수 있는데, 국조례는 「국왕상제」와 「국가혼례」 두 편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사가례에 관한 것들이다.

1) 국조례

(1) 「국왕상제」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왕상제(國王喪制)」에서는 국왕의 상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홍석은

부모님의 상에 삼년상을 치르는 것은 모든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한(漢) 문제(文帝) 때부터 시작된 역월제(易月制)³² 등 역대로 상기(喪期)를 단축한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만세의 죄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한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는 조선 왕실의 상복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졸곡 이후에 상주인 임금이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의(白衣)로 조회를 보는 것을 지적하여 비판을 가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홍석은 국왕이 상을 치르는 동안에 개소(開素)³³하는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도 그는 “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부모에게는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상중에 불행히 병이 들었다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옛 가르침이 있다. 하지만 아직 병이 들지 않았는데 미리 병이 들 것을 염려하여 개소를 하라는 것이 어찌 군자가 주청해야 할 바이겠느냐?”면서 단호하게 비판한다.

(2) 「국가혼례」

「국가혼례(國家婚禮)」는 왕비(妃)나 빈궁(嬪)을 선택하는 절차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홍석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으로 보는 대목은 “(왕비나 빈궁 후보자들을) 대궐 뜰에 모아 놓고 용모와 복식을 살펴서 누가 나은지를 분별하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잉첩(媵妾)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왕비나 빈궁은 지존의 배필이자 국모가 될 사람들인데 이런 절차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홍석이 제안하는 대안은 먼저 대신들에게 널리 묻고 물정을 널리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후보자의 집안과 부모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확인할 수 없

32 역월제는 상례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달수를 날수로 바꾸어 계산하여 상례를 치르던 제도다. 예컨대, 삼년상인 경우 한 달을 하루로 환산하여 25일 동안 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33 개소는 상중에 素食하던 것을 해제한다는 말로, 생선과 고기 등을 먹게 한다는 뜻이다.

으니 시초점이나 거북점을 치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다.

2) 사가례

앞서 살펴본 국조례와 대비하여 사가례라고 했지만, 실은 가례(家禮)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홍석이 사가례 관련 논의를 『가례』에 따라 분류하면 통례·혼례·상례·제례 그리고 기타로 나눌 수 있다.

(1) 통례

통례(通禮)와 관련한 자료로는 권7에 수록된 「심의설(深衣說)」과 습유에 수록된 「답종질(答從姪)」 두 편이 있다. 먼저 「심의설」은 심의를 재단해서 제작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글인데, 특히 구준(丘濬)의 설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답종질」은 지종(支宗)이 되어서 별묘(別廟)를 새로 창립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절차를 『가례』에 나오는 부제(附祭)에 준해서 시행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2) 혼례

혼례(婚禮)에 관한 자료로는 「동퇴변(同牢辨)」 한 편이 전한다. 이 글은 혼례 절차 중 행하는 ‘동퇴’³⁴에서 ‘퇴(牢)’자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변증한다.

34 동퇴의 원래의 뜻은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한 마리의 희생을 함께 먹는 것인데, 후세에서는 신혼부부가 한자리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뜻으로 쓰였다.

(3) 상례

『가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상례(喪禮)이다. 따라서 홍석의 사가례 관련 자료 중에서 상례에 관한 논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서는 상례와 관련한 홍석의 예설을 『가례』의 상례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반함의(飯含議)」는 당시 상례에서 반함을 할 때 굳이 무공주(無孔珠)를 사용하려는 시속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② 「대소렴효포변(大小斂絞布辨)」은 대렴(大斂) 때 사용하는 효포(絞布)³⁵로 “반폭 짜리 베[半幅布] 다섯 조각을 사용하라.”는 『가례의절』과 이 견해를 따르면서 “『가례』의 <가례도(家禮圖)>에 ‘열다섯 조각을 사용하라.’고 한 것은 오류다.”라고 비판한 『상례비요』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③ 「부인최복론(婦人衰服論)」은 성복(成服)과 관련하여 『가례』에 남자의 상복은 고대의 예제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데 비해 부인의 상복은 그렇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보정할 것인지론 논한 글이다. ④ 「성빈론(成殯論)」은 뜰 가에 임시 시령을 만들고 아직 식지도 않은 부모의 시신을 그곳에 모시면서,³⁶ 정작 상주인 자식은 따뜻한 방에서 지내는 당시의 행태를 비판한 글이다. ⑤ 「천구취여론(遷柩就輦論)」은 발인을 하기 위해 널을 상여로 옮길 때 부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를 제시한 글이다.³⁷ ⑥ 「장구론(葬具論)」은 어떻게 하면 돌아가신 분의 육

35 효포는 염할 때 마지막으로 옷을 묶어 매는 베이다.

36 성빈은 원래 빈궁은 구덩이[窆]를 파고, 그곳에 관을 안치하고 흙을 발라 밀폐한다. 『가례』에 “옛날에는 대렴을 하고서 빈소를 차렸는데, 이미 대렴을 하였으면 불에 굶지 않은 벽돌을 쌓고 진흙으로 발랐다[古者 大斂而殯 既大斂 則累塹塗之].”고 했다.

37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8 「遷柩就輦論」, “發引曉 上食撤後 相者立于帷外 使雜人及役夫屏退 令子弟一人 導諸婦人詣柩側 各定其位 尊者坐哭 餘皆伏哭盡哀再拜 … 發行 婦人家衆出衢路 哭送 極目未見而後 哭還入爲可”.

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棺)을 가급적 오래도록 썩지 않게 할 것인가를 검토한 글로, 어떤 목재가 적합한지, 목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토질에 안장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검토한다. ⑦ 「불용석회(不用石灰)」는 장례에 석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글로, 앞에서 살펴본 「장구론」과 함께 보아야 할 글이다. ⑧ 「결관의(結棺議)」는 관을 이동할 때의 편의를 위해 밧줄로 관을 묶는 잘못을 검토하면서 이상(夷牀)의 소연(小緣)을 이용하여 운구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⑨ 「조조설(朝祖說)」은 조조의 본질적 취지는 혼기(魂氣)가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히게 될 육신(肉身)이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혼백(魂帛)으로 대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집안이 아무리 좁다 한들 어찌 널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겠느냐?”라고 비판한다.³⁸ ⑩ 「복장설(卜葬說)」은 수천 리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우리 땅[吾地]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적당한 땅이기만 하면 고산(故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³⁹ ‘타향에 장례를 치르면 수호하기 어렵다.’는 설, ‘남의 산에 장례를 치르면 고혼(孤魂)을 면치 못한다.’는 설, ‘혼신(魂神)이 처음 죽은 곳에 있으면 간혹 괴이한 일이 있다.’는 설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한다. ⑪ 「정장지설(定葬地說)」은 소위 풍수지리설에 따라 장지를 결정하는 시속을 비판하는 글로, 풍수지리설의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점

38 洪錫, 『遜愚先生文集』卷7 「朝祖說」, “夫魂帛乃魂氣之所依 人死魂氣 自與祖先魂氣有同歸之理 何必朝于祖而辭退乎 但人生平日居于家 奉先廟 今將入地 揆以生平之情事 則宜其有留別之情 及出必辭之義 孝子體其情義 奉柩朝祖 以效永辭之狀 斯誠惻怛 不可撓改之制也 家舍雖狹寧 無容柩之地乎 依古禮 奉柩行之至當 魂帛代行 恐無謂也”.

39 洪錫, 『遜愚先生文集』卷7 「卜葬說」, “夫人之死也 魂升魄降 屍體爲一虛殼 而先王以不忍棄爲 狐狸烏鳶之所食 於是爲埋葬之制 是知人死地藏之而已 不必世世同山 然後可葬也 況吾東幅員 不過數千里之內 此間何處不爲吾地乎 苟得其地 則雖非故山 葬之固宜”.

과 그것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人欲]도 함께 비판한다.⁴⁰ ⑫ 「산론(山論)」 역시 큰 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정장지설」의 연장선에서 풍수지리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글이다. ⑬ 「우제의(虞祭議)」는 우제부터 제례의 형식이 갖춰지므로 우제를 지낼 때 그동안 난발(亂髮)이었던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망건(網巾)⁴¹을 쓰고 제사를 지낼 것을 검토한 글이다. ⑭ 「망건설(網巾說)」은 대상(大祥)을 지낸 뒤 어떤 망건을 쓸 것인지와 관련하여 “흰색과 검은색의 거친 말총을 섞어서 만들어 쓰라.”고 한 사제의 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⑮ 「거상의(居喪議)」는 특정한 의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을 치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글로, 의무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위가 거상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⁴² ⑯ 「개장복의(改葬服議)」는 개장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를 다룬다. 하나는 개장을 할 때 시마복(總麻服)을 입는데 이때 입은 복은 언제 벗느냐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마복 대신 조복(吊服)에 가마(加麻)를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4) 제례

① 「의행조건시종자(宜行條件示宗子)」는 종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열

40 洪錫, 『遜愚先生文集』卷7 「定葬地說」, “彼亦非不知專仰術說之爲非 而人欲蔽蔽 皆有要利之心 自未免一聽其言 做錯滔滔 惑之甚矣 還可哀也”.

41 網巾은 말총으로 網을 만들어 머리털을 싸매는 것이다. 명 태조가 아직 등극하기 전에 神樂觀에 가서 도사가 실로 망을 엮어 머리털을 싸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니, 그 뒤에 명하여 천하에 그것을 행하도록 했다. 만력 연간에 이르러 비로소 빠진 말총으로 실을 대신했다.

42 洪錫, 『遜愚先生文集』卷6 「居喪議」, “觸處而思親 觸物而思親 縱未免治家理生 而一念常在於亡親 則居喪之制 其庶幾哉 不然 拘攣法制 強飾處喪 則那免手足敗露 到處陷溺乎”.

두 가지를 제시한 글이다.⁴³ ② 「우시종자(又示宗子)」【부묘제식(附墓祭式)】은 앞에서 살펴본 「의행조건시종자」에 이어서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글이다.⁴⁴ ③ 「기제불용소찬론(忌祭不用素饌論)」은 기제에 소찬을 사용하는 것의 잘못을 비판하는 한편, 고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⁴⁵ ④ 「행제의(行祭議)」는 제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제사음식을 구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 둘째, 주사자(主祀者)가 아닌 지자(支子)도 제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내용, 셋째, 고을 수령의 제사음식 준비를 관청에만 맡기지 말고 정성을 다하라는 내용을 다룬 글이다.

(5) 기타

① 「사초변용(莎草變用)」은 묘의 봉분과 묘역을 덮는 사초(잔디)에는 잡초의 뿌리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 묘역 전체가 잡초로 뒤덮이게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잡초 없이 순수한 잔디만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글이다.⁴⁶ ② 「입후설(立後說)」은 자식이 없어서 남의 자식으로 입후(立後)를 한

-
- 43 열두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일 새벽 謁廟를 행할 것, ②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과일 두 가지와 술 한 잔을 준비하여 사당에 올릴 것, ③ 사계절마다 지내는 時祭를 폐지하지 말고, 최소한 봄과 가을만이라도 제사를 지낼 것, ④ 忌祭에 素祭가 아닌 肉膳을 올릴 것, ⑤ 기제는 기일을 맞는 분에게만 제사를 지낼 것, ⑥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지우는 祭酒를 행할 것, ⑦ 돌아가신 분의 생일날 지내는 茶禮를 폐지할 것, ⑧ 동짓날 지내는 차례에 팔죽을 올리지 말 것, ⑨ 墓祭는 變通할 것, ⑩ 묘제에도 축문을 사용할 것, ⑪ 묘제를 지낼 때 山神祭를 주자의 말씀대로 할 것, ⑫ 四代奉祀를 할 것.
- 44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① 아버지 사당 禰祭를 지낼 것, ② 親盡한 조상이라서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더라도 묘제는 지낼 것 등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서 이러한 묘제를 지낼 때 어떤 조상을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당부한다.
- 45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8 「忌祭不用素饌論」, “忌祭用肉 斷然爲是 而宗家之制 非吾之所能擅論 惟當吾家後日變通此制 用肉於忌祭 三年內上食亦當用肉”.
- 46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5 「莎草變用」, “水邊莎草 揭起而簸揚 則雜根隨沙盡落 惟有莎草專根

뒤에 자식을 낳은 경우에 누구를 후사로 삼아 봉사(奉祀)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③ 「생일차례론(生日茶禮論)」은 돌아가신 분의 생일날 차례를 지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논한 글이다. ④ 「수령치상반혼론(守令妻喪返魂論)」은 지방 수령이 부임을 앞두고 아내의 상을 당한 경우에 애자(哀子)로 하여금 공해(公廨)에서 상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잘못임을 논한 글이다. 특히 홍석은 수령 자신보다 어머니를 잃은 애자의 입장을 각별히 고려하는데,⁴⁷ 이는 자신이 어머니의 상을 당한 12세 때 익산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서 날마다 울다가 본가로 돌아와 상을 치렀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말일 것으로 짐작된다.⁴⁸ ⑤ 「사직신설시축문(社稷新設時祝文)【부진설도(附陳設圖)】」는 홍석이 자신이 거처하는 곳 산비탈에 사직단을 세우고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축문과 제사의 진설도이다.⁴⁹ ⑥ 「답혹인(答或人)」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상을 당한 사람이 상기(喪期)를 단축하여 13개월(반 1년) 만에 대상을 치르고도 삼년상 기간 동안 궤연에 상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의한 글이다. 홍석은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심하게 비판한 사계의 입장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계의 견해가 원칙적으로 맞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인정을 참작하여 변통을 가한 퇴계의 견해를 근

取此爲數馱 則一墳塋域足以盡鋪 灑土于其上 覆之以空石 勿令乾曝 則才過半朔 根着而芽生 無雜草而爲精莎”.

- 47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8 「守令妻喪返魂論」, “蓋人子居喪 一生大關 一有所失 平生身累 須無外誘之混雜 可得內斯專精 故禮訓有曰 居於樸陋之室 無故 不入中門 嗚呼 其意微且深矣”.
- 48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乙卯 先生十二歲 八月丁淑夫人韓氏憂【時郡守公出知益山 以先生幼 帶至任所 先生每夕輒北望號泣 請歸侍殯側 郡守公哀其情 許令歸家 先生至家 與諸兄啜粥廬墓 克執喪禮 不以穉少有間焉】”.
- 49 「연보」에 따르면 홍석은 1651년에 사직단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축문의 내용보다 사직단을 세워서 사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홍석의 생각이다. 洪錫, 『遜愚先生文集』 「附錄·年譜」, “辛卯 先生四十八歲 … 築社稷壇於家麓 春秋行祭【先生嘗曰 凡人定居處 食其土 則宜念所本 揭虔陰報 故國都祀一國之社稷 州郡祀一境之社稷 村閭祀一洞之社稷 宜無不可 而風俗蔑劣 莫敢創舉】”.

거로 심상을 하면서 상식을 올리는 것에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다.⁵⁰ 다만 그러면서도 “만일 아버지가 이미 재취하여 전처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이상 없어서 케연을 그대로 남겨 두라고 명하지 않았다면, 자식은 도리상 고례를 어기지 않는 것이 옳다.”는 점도 아울러 분명히 한다.⁵¹

IV. 손우 홍석 예학의 특징과 의의

1. 손우 홍석 예학의 특징

예서와 예설을 바탕으로 살펴본 홍석 예학의 특징으로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변통성이다. 변통성은 변화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소통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홍석은 기존의 예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관행이 예의 본질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오해와 관행을 변화 또는 변경함으로써 예의 본질이 소통될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홍석 예학의 첫 번째 특징이다.

홍석 예학에 나타나는 변통성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즘 사대부들은 모두 주(珠)를 사용하는데, 이는 제후의 예를 참람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 무공주(無空珠)가 없다면 유공주(有空珠)를 사용한들 무슨 상관

50 洪錫, 『遜愚先生文集』 拾遺「答或人」, “又有退溪答金而精問目曰 心喪人 朝夕祭 白布衣爲當 所謂心喪人 乃父在母喪祥後之人也 既撤几筵 又無上食 則何須有此祭時服飾之論乎 此亦爲參看變通之地矣 … 在凡人 以哀情從俗變通 果何深罪 而痛禁之乎”.

51 洪錫, 『遜愚先生文集』 拾遺「答或人」, “如或父已改娶 無復戀舊之念 不命之因留几筵者 則爲子之道 不違古 禮爲可也”.

이 있겠는가? … 세상 사람들은 시속을 따를 줄만 알고 감히 변통할 줄 몰라 기어코 무공주를 사용하려 한다. 구차하게 무공주를 사용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⁵²

이것은 상례 중에 반함(飯含)을 할 때 그 내용물로 구멍이 없는 무공주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멍이 있는 유공주를 사용해도 괜찮은지에 관한 논의 중 일부이다. 어차피 예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반함에 사용하는 주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반함에 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대부의 예가 아니라 제후의 예이다. 따라서 유공주나 무공주나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예의 본질에서 문제를 살피지 않고 관행적으로 해 오던 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홍석은 변통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통을 강조한 홍석은 심지어 변통이 도리에 맞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예의 새로운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기까지 한다.⁵³

홍석 예학의 두 번째 특징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과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도전정신을 의미한다. 홍석은 예학에 있어서 기존의 예문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했으며, 그것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 대안으로 이어진다. 장례에 오래 사용했던 석회에 독성이 있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물에 갈린 곱지 않은 모래에 황토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든가,⁵⁴ 묘를 조성하는

52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6 「飯含議」, “今則大夫士庶皆用珠 僭諸侯之禮也 … 若無無孔珠 則用有孔珠何妨 … 世人徒知從俗 莫敢變通 必用無孔 苟且圖之 爲可笑也”.

53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5 「不用石灰」, “宋孝宗有言 我自作古 而變其喪制 變得其道 則人孰不宜自作古 而變用其妙制乎”.

54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5 「不用石灰」 참조.

데 사용하는 사초에 잡초가 번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의 잔디를 이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⁵⁵

홍석의 예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합리성이다. 홍석 예학의 합리성은 특히 풍수지리설과 관련한 논의에 잘 드러난다. 그는 「정장지설」과 「산론」 등을 통해 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화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묻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허물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배격한다.

장지의 좋고 나쁨이 어찌 살아 있는 사람에게 화가 되거나 복이 될 리가 있겠는가. 세상에 재앙을 당하여 거덜이 난 집안은 전부 각자 기구한 운수로 당한 것이다. 하필 장지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고 여기고 사람의 일에서는 그 원인을 구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오묘한 것에 미혹되는가. 학식이 있는 자가 그러한 허물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⁵⁶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홍석 예학의 특징은 부녀자의 예에 관한 관심이다. 대표적으로 사가례의 표준으로 활용된 『가례』는 주인과 주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은 거의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성복(成服)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복식이 남성의 복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부녀자의 복식은 매우 소략하거나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홍석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이 「부인최복론」이다. 또한 행례에 있어서도 남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에 비하면 부녀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 역시 대단히 소략하거나 생략되어있는 곳이 많

55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5 「莎草變用」 참조.

56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7 「定葬地說」, “葬地之好否 寧有禍福於生人之理乎 世間禍敗之家 無非自家奇運所值 何須必爲葬地之所崇 而不求諸人事 生惑於玄盲 識者不可效其尤也”.

다. 홍석이 이 점을 비판한 글이 「천구취여론」이다.

2. 손우 홍석 예학의 의의

홍석이 활동한 17세기는 조선시대 예학이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전통을 만들어 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또한 그가 활동한 공간은 영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적 연원은 기호학파에 속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와 같이 그의 예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선시대 예학사에서 그 의의를 짚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의 예학은 거의 대부분 『가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가례』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축적되고 전개되었는지를 추적해 보면 조선시대 예학의 경향이나 수준도 함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가례』 연구가 단순히 『가례』만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례』를 중심으로 고례(古禮)와 국전(國典)은 물론 속례(俗禮)까지 아우르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례』는 일찍부터 예서로서의 자체적 결합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가례』 연구는 필연적으로 이 결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도 『가례』는 다시 고례와 국전 등을 포함해 축적된 예학 연구의 산물을 함께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더해 『가례』 연구는 『가례』가 다 포함하지 못하는 복잡다단한 변례(變禮)들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가례』에 실려 있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에까지 연구의 폭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조선의 경우, 15세기에는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등 국가 전례를 정초하는 한편 민간 의례에 관한 국가공인의 행례 매뉴얼이 국가 주도로 마련된다. 16세기에 이르르면 수준 높은 예학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예에 관한 다양한 문답류들이 양산되고, 그와 동시에 훈고와 고증의 방법으로 『가례』의 의

미를 명료화하려는 주석서들이 저술된다. 17세기에는 체재와 내용 면에서 훨씬 충실한 행례 지침서들이 만들어지고, 언해서들이 등장하며, 의례와 변례에 관해 독자적으로 정리하고 논증한 예서들이 출현한다. 18세기가 되면 행례와 고증 그리고 변례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예서들이 학과별로 간행되기에 이른다. 이후 19세기에는 18세기의 성과를 보완하거나 절요(節要)한 예서들을 확산해 나가는 경향을 보인다.⁵⁷

조선시대 『가례』 연구 경향은 우선 『가례』 자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기하고자 했고, 다음으로는 『가례』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했으며, 마지막으로 『가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심지어는 『가례』를 극복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는 조선이 단순히 『가례』를 수용하고 준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례』를 자체적으로 소화한 다음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어느 유교 문화권, 심지어 동시대 중국과 비교하더라도 압도할 만한 『가례』 연구 성과가 이를 웅변한다. 또한 이와 같은 성리학자들의 자발적인 연구는 성리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이 이념의 차원에서만 맴도는 지적 유희가 아니라 생활세계에 구현됨으로써 실제적 의의를 확보하는 실천철학임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행위이다.

이상과 같이 오랜 시간 축적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예학 연구사에서 살펴보면, 홍석의 예학은 더 이상 『가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지를 찾아 헤매는 답답함이나, 『가례』의 한계점을 학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가 활동했던 17세기에는 이미 수많은 행례지침서들이 만들어졌고, 언해서들이 등장했으며, 의례와 변례에 관해 독자적으로 정리하고 논증한 예서들이 출현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예학은 애초에 예가 발생하고 전개되었던 중국과 다른 시간과

57 장동우, 『『가례』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 『동양철학』 34(2010).

공간적 조건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예학은 당연하게도 다양한 난제에 둘러싸인 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조선시대 예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을 축적해 감으로써 조선시대 예학의 수준을 높여 갔다. 이 과정에서 16세기 초·중반 예학 연구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과 학자들이 선도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16세기 말부터 기호 지역의 율곡학과에서 예학적 산물이 대폭 증가한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풍부한 예학적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예학의 풍요로운 생태계를 형성한 영남학과와 기호학과, 이 두 학과가 각자 영역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그려 가던 그 시기에 경계선 위에 서 있던 인물이 홍석이라고 할 수 있다.

홍석은 학파적으로는 분명 사계 김장생에 연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의 예설에는 김장생의 설에 동의하지 않는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예를 들면, 그는 관을 이동할 때의 편의를 위해 밧줄로 관을 묶는 잘못된 관행이 『상례비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상(大祥) 후에 “흰색과 검은색 말총을 섞어서 망건을 만들어 쓰라.”는 사계의 설에 대해 “구속받고 정체되어 구차한 일”이라며 비판했다.⁵⁸ 또한 부재위모상(父在爲母喪)에서 1년이 지난 뒤에도 상식(上食)을 하는 자식을 향해 ‘비례(非禮)’라고 비판한 사계의 설에 대해서는 “백포의(白布衣)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퇴계의 설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뭐 그리 심한 죄라고 엄격하게 금지하는가?”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홍석은 당시 기호학과를 대표하는 김상헌의 문인일 뿐 아니라, 송시열과 송준길의 교우이다. 특히 송시열은 홍석을 가리켜 “동지들 중에 예학의 1인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홍석은 태백산으로 동천한 이후 가장 먼저 손

58 洪錫, 『遜愚先生文集』卷7「綱巾說」 참조.

을 댈 작업이 정구의 『오선생예설분류』를 요약·정리해서 『예총요설』로 완성하는 일이었고, 그의 대표적 예서인 『상제요록』에 이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용담 현령으로 재직할 때는 정구의 『오복연혁도』를 중간하기도 했다.

홍석이 당시 퇴계학파의 인물들과 긴밀하게 교류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지만 송시열이나 송준길과는 막역한 친분을 유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학문적 결과물을 송시열이나 송준길에게 보내 검토를 부탁했고, 특히 송시열에게는 여러 편의 서·발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퇴계학파에 속한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학에 퇴계학파의 예학적 자취가 다수 발견되며, 특히 정구의 예학과는 긴밀한 영향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그가 『예총요설』을 편찬하고 쓴 「예총요설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崇禎) 신사년(1641)은 내 나이 38세로 고개(嶺)를 넘어온 이듬해이다. 한창나이에 세상을 피해 고개를 넘어오는 것이 어찌 하고 싶어서였을까마는, 세상사가 크게 변함에 개탄을 금치 못하여 미친 듯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내가 산으로 들어온 본뜻이다. 하물며 이 땅은 유현(儒賢)의 여운이 있고 문헌을 징험하기 충분하며, 또한 난리를 겪지 않아 집집마다 대대로 전하는 서책이 많이 있음에랴.⁵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홍석의 예학은 17세기 초반까지 조선시대 예학이 축적한 자산을 충분히 자신의 예학에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예학 연구에

59 洪錫, 『遜愚先生文集』 卷6 「禮叢要說記」, “崇禎辛巳 余年三十八 踰嶺之翌年也 以芳年遜世而踰嶺 夫豈所欲哉 而世事大變 慷慨不能堪 有若發出狂而到此 是乃余入山之本意也 況此地有儒賢遺韻 文獻足徵 且不經亂 家家多有世傳書冊”.

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통성·창의성·합리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기호학과라는 학문적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나 영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호학과와 영남학과의 예학적 자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유연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V. 나오는 말

1636년 야만(오랑캐)에 의해 강토가 짓밟히고 군주가 치욕을 당했으며 백성들이 곤욕을 치렀지만, 옳게 저항 한 번 해 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문명(조선)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태백산 자락에 근거한 다섯 사람의 지식인을 ‘태백오현’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홍석은 부친의 상을 마친 37세(1640년)에 세거지 한양을 버리고 동천의 길에 올랐다. 그는 봉화군 춘양동 손우평에 터를 잡은 이듬해부터 정구의 『오선생에설분류』를 요약·정리한 『예충요설』을 편찬했다. 이어서 1645년부터는 삼례서 가운데 『예기』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16부 53조목으로 분류해서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1654년 『예기유희』로 완성했다.

태백산으로 동천한 직후 15년 동안 홍석은 그야말로 예학에 빠져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예학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충요설』의 편찬 과정을 통해 성리학을 완성한 선현들의 예설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예기』를 분류하고 재배치하는 『예기유희』 편찬 작업을 통해 고례의 본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작업을 통해 홍석은 예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 변례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학습해 나갔을 것이다. 실제로 그가 편찬한 『상제요록』에는 이 두 책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얻은 학습의 결과물이

잘 담겨 있다.

홍석의 예학은 국조례와 사가례에 걸친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논한 예설들에 그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국조례와 관련해서는 「국왕상제」와 「국왕혼례」를 통해 예의 본질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가례와 관련해서는 통례·혼례·상례·제례와 기타 변례 등에 관하여 모두 31편의 예설이 변·의·설·논 등의 방식으로 남아 있다.

이들 예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홍석 예학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의 본질에 대한 오해와 고착되어 버린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변통을 요구하는 변통성이다. 두 번째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성이다. 세 번째는 시속의 예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상식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합리성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하거나 생략되어 있던 부녀자의 예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홍석의 예학은 17세기 초반까지 조선시대 예학이 축적한 자산을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예학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변통성·합리성·창의성을 발휘하였다. 그의 예학이 갖는 예학사적 특징은 그 자신이 기호학과의 일원이었고 지속적으로 기호학과의 학자들과 교류했으면서도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영남학과의 예학적 자산을 충분히 흡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학과적 경계를 넘나들었던 학문적 유연성이 그의 예학적 특징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洪錫, 『遜愚先生文集』.

洪錫, 『遜愚先生文集』 拾遺.

『喪祭要錄』.

『書經』.

『孟子』.

2. 논저

김용주, 「손우선생문집 해제」, 홍석(저), 김용주(역), 『손우선생문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0.

장동우, 『『가례』주석서를 통해 본 조선 예학의 진전과정』, 『동양철학』 34, 2010, 239~269쪽.

정경주, 「오복연혁도 해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편), 『한국예학총서 2』, 부산: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한재훈, 「寒岡의 退溪 禮學 繼承과 進展: 『五先生禮說分類』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6, 2019, 1~30쪽.

홍석(저), 김용주(역), 『손우선생문집』,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20.

국문초록

손우 홍석은 1604년에 태어나 1684년까지 살았던 조선시대 중기의 학자이다. 그는 한양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고위관직을 역임했던 명문가의 후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호학과 인물로 성장했다. 하지만 1636년 발발한 병자호란을 피해 영남 봉화 지역으로 이주하여 태백산 기슭에 은거하면서 이른바 ‘태백오현’으로 불렸다.

홍석은 봉화 지역에 머물면서 과거시험을 통해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포기하고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했다. 특히 태백산 기슭에 은거하던 초창기에 역점을 두었던 학문 분야는 예학(禮學)이었다. 그가 예학에 관심을 두었던 것은 무너진 세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만년에는 시무설(時務說)을 저술하고 관직에도 나아가는 등 현실을 바로잡는 일에 종사했다.

훗날 홍석의 학문에서 가장 주목되는 업적으로 평가받은 분야는 예학이었다. 실제로 그는 『예총요설』과 『예기유회』를 정리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제요록』을 편찬했으며, 다양한 주제에 걸친 예학적 소재들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예설을 다수 남겼다. 국조례에서부터 사가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진 그의 예학은 17세기 초반까지 조선시대 예학이 축적한 자산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예학은 기존의 예학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변통성과 창의성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특징이 강하게 발견된다.

투고일 2024. 12. 20.

심사일 2025. 2. 3.

게재 확정일 2025. 3. 4.

주제어(keywords) 손우(Sonwoo) 홍석(Hong Seok), 예학(The study of Li),

영남학파(Yeong-nam schools), 기호학파(Gi-ho schools), 태백오현(The Five Sages of Mount Taebaek)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Hong Seok's Study of Li

Han, Jaehoon

Hong Seok (1604–1684) was a scholar in the mid-Joseon dynasty. Hong was a descendant of a prestigious family that lived in the Joseon capital, Hanyang, for generations, and he served as a high-ranking official. Accordingly, he matured in the academic climate of the semiotic school. However, he moved to the Bonghwa region of Yeongnam to escape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that broke out in 1636. Thereafter, he lived in seclusion at the foot of Mount Taebaek and became known as Taebaek-ohyeon (“The Five Sages of Mount Taebaek”).

Hong remained in the Bonghwa region, where he abandoned the idea of advancing to join the court on the merit of his performance in past examinations; instead, he devoted himself to studying neo-Confucianism, with a focus on Li, especially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hermitage. The reason underlying his concentration of attention on Li was his desire to straighten the discipline of the collapsed world. In Hong's later years, he published theories outlining the necessary actions to reform the country, and he even assumed some government positions.

Critics who have assessed Hong Seok's scholarship have noted that his primary focus was the study of Li. Relatedly, he organized the *Yechongyoseol* (禮叢要說) and *Yegiryuhoe* (禮記類會), compiled the *Sangjeorok* (喪祭要錄) based on those works, and wrote a number of treatises in which he expressed his views on a wide range of topics linked to Li. Specifically, his body of work on Li encompasses the rituals of the state to those of ordinary households and draws on the artistic asset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had accumulated by the early 17th century. However, Hong's study of Li goes a step further than the traditional study of Li since the former is characterized by flexibility, creativity, and rationality.